중소건설기업의 성장 지원정책 수립방향

이치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cjlee@krihs.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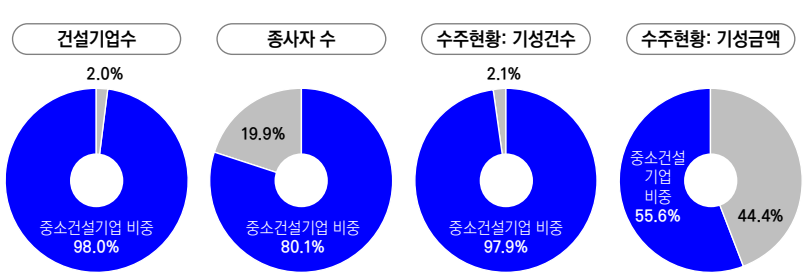
Ⅰ. 서론
Ⅱ. 기존의 성장 지원정책
Ⅲ. 성장 지원정책 수립방향
Ⅳ. 결론

2

Ⅰ. 서론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업수와 기성건수에서 중소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8%이며, 종수자 수에서도 약 80%로 그 비중이 크게 높다. 하지만, 기성금액은 약 57%로 기성건수에 비해 크게 적다(그림 1,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020, 통계청 2019).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건설기업 중, 중소건설기업의 수는 약 75%이고 계약건수는 약 51%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계약금액은 약 2%로 크게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0). 이와 같이,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기업이 기성건수에 비해 기성금액이 낮은 이유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사업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소건설기업의 비중(2018)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쟁력을 지금 당장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소건설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본고에서는 기존 성장 지원정책의 보완사항을 조사하여, 성장 지원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기존의 성장 지원정책

기존의 중소건설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주체별로 분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는 정부에서 추진한 122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17개 시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토로공사 정부는 인력과 공간·장비, 사업화,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의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과 전문지식, 금융지원과 같은 해외시장진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건설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해외시장진출보다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지원에서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지원 및 금리인하 등의 비용에 관련한 내용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입찰경쟁력 확보지원와 같은 지역건설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수 중소건설기업의 선정 및 입·낙찰, 고용, 공정거래, 역량강화, 일감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건설기업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중소건설기업 지원현황

	지원항목	정부	지자체	공공
기술개발지원	인력	●		●
	공간·장비	●		
	사업화	●		●
	금융	●		●
	규제완화	●		
해외개발지원	시장개척	●		●
	전문지식	●		●
	금융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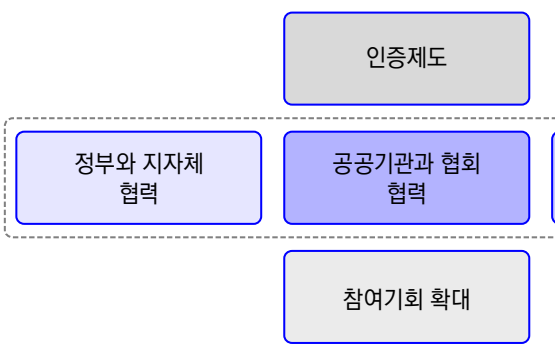
	지원항목	정부	지자체	공공
지역건설기업지원	우수기업		●	
	입·낙찰		●	
	고용		●	
	공정거래		●	
	역량강화		●	
	일감확보		●	

중소건설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체별 지원 방안을 통합할 수 있는 성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진출을 목표로 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혹은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건설시장 진출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소건설기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성장 지원정책 수립방향

본고에서는 중소건설기업의 성장 지원정책의 수립방향을 크게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한 인증제도의 수립과 다양한 조직(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협회, 공제조합·금융기관) 간의 협력 지원, 중소건설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로 분류하여 제안한다(그림3).

그림 3 중소건설기업의 성장 지원정책 수립방향



먼저,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수 중소건설기업을 인증하는 제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가 48개이며, 그 중에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는 13개(국토교통부 1개, 중소벤처기업부 8개, 산업통상자원부 3개, 특허청 1개)로 조사되었다(표1). 각 인증제도에서 중소건설기업이 지원받고 있는 비율은 크게 적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인비즈(12.2%)와 이노비즈(4.1%)에서 지원받고 있는 중소건설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두 인증제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혜택에는 금융·세제와 판로·수출, 인력, 컨설팅·홍보, R&D 지원이 중점을 이루고 있지만, 건설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건설산업의 특징에는 수주산업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어려움, 해외시장 진출에서의 위험, 건설보증·보험, 및 공공발주기관의 존재 등이 포함되어, 다른 산업과 다른 성장지원이 필요하다. 즉,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혜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중소건설기업의 성장 지원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표 1 부처별 중소기업 인증제도와 건설기업의 비중

담당 부처	인증제도	건설기업 비중
국토교통부	우수 물류기업	0%
중소벤처기업부	메인비즈	12.2%(2021년 5월)
	이노비즈	4.1%(2019년)
	수출 유망 중소기업	0.3%(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0%
	뿌리기업	0%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지정	0.7%(2020년)
	명문장수기업	0%
	해외진출 유망 중소기업(G-PASS)	0%
산업통상자원부	단체표준인증	0%
	뿌리기업 명가지정	0%
	사업재편 승인기업	0%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2.8%(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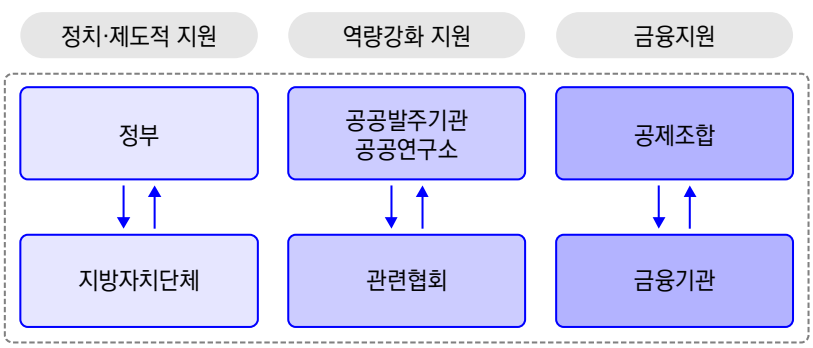
출처: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중소건설기업 인증제도를 수립할 때, 관련 부처 간의 연계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은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신용보증기금 요율 및 매출채권보험료, 각 은행과 연계한 금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과 같은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자금유동성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건설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내용에 혜택을 받는 비율이 크게 낮아, 산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할 수 있다면,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성장 잠재력 및 의지가 있는 중소건설기업에 한해서이다. 이와 같은 인증제도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에게 인증제도의 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2021년에 시범사업으로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20개를 선정하여, 성장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수립하여 지역 중소건설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건설기업 성장 지원 정책이 연계된다면, 개별로 지원되는 경우보다 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정치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지원제도를 정부의 관점에서 재정리한 지원제도로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4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지원 필요



셋째, 공공발주기관 및 공공연구기관과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과의 협력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건설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청년인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청년인력의 유입을 위해서는 취업 준비생의 교육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에는 공공발주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은 다양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① 중소건설기업 종사자와 취업 준비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공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발주기관은 교육생이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전공자 및 청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중소건설기업에게 필요한 시공기술 개발을 위한 지식과 인력,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건설기업이 받고 있는 혜택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사를 직접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을 사용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③ 건설기업과 관련된 협회에서는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지식부터 법률, 세무, 노무와 같은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협회는 회원사의 수요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효율적일 것이다. 현재도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 공공발주기관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 향상과 연구기관의 전문성이 중소건설기업에 전달되어, 그 기대효과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금융기관의 협력도 필요하다. 금융기관과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므로,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제조합에서는 공사유형에 따른 각종 보증·보험의 수수료 할인과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공제조합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금리인하와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펀드조성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중소건설기업에 특화된 펀드를 협력 조성하여, 국내시장진출의 확대와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도 금융기관은 공제조합에 비해 건설산업의 특징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공제조합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건설산업에 특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중소건설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장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건설기업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원정책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격을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 대부분의 중소건설기업은 생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의 성장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관심과 참여동기 부족하다. 더욱이, 건설산업은 원·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체적으로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중소건설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중소건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홍보를 수행하거나, 대형 건설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중소건설기업에 홍보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에서 성장 지원정책을 중소건설기업에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역할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중소건설기업들이 정부의 성장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의 문턱을 낮출 필요도 있다. 많은 중소건설기업의 성장 지원정책에 참여하고, 인증을 받아서 그 효과가 건설산업에 알려진다면, 더욱 많은 중소건설기업이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중소건설기업이 우리나라 건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수주금액이 적고 기술·기능인력의 부족하여 생업 이외의 추가 노력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중소건설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조사한 후, 성장 지원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 ①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도의 수립,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지원, ③공공발주기관·연구기관과 관련 협회의 협력지원, ④건설관련 공제조합과 금융기관의 협력지원, ⑤성장지원정책에 중소건설기업 참여확대가 포함된다. 물론, 지원정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소건설기업 스스로의 성장에 대한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 우수 중소건설기업으로 선정할 때,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 정리하면, 제안된 정책수립 방향이 중소건설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건설산업 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2020년 08년 25일 검색).
2.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800.do (2021년 6월 20일 검색).
3. 김민철·이치주 외. 2021.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4. 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http://kosis.kr (2020년 08월 25일 검색).
5.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2020년 08년 25일 검색).